



■ 식용란 표시 실효화 및 안전관리 개선 관련 2차 협의회

- 지난 8월 4일에 이어 8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식용란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2차 협의회가 개최되어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 최영진 수의사무관등 검역원 관계자들과 대한양계협회,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협회, 조인(주), 풍림(주)의 대표자들이 함께 영업신설, 영업범위,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각 업체 및 협회의 입장과 의견을 토론했다.
- 식용란포장처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용란을 수집, 선별, 포장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범위로 두고 적합한 제도를 확립키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회가 진행될 계획

■ 계란산업발전대책 연구회 창립총회

- 지난 8월 27일 계란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계란산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 및 가공, 수출 단계까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계란산업발전대책 연구회' (회장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계란의 생산, 유통, 정책 분야로 3개의 분과를 나누어 각 분과위원을 선출하였고, 회칙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 연구회에서 산란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 분과의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건의할 예정

■ 향후 일정 및 공지사항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10/7, 14시 예정)

